
2020년 제10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2. 28. ~ 3. 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28.	시청률	0.007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58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300명을 넘어서면서 국가재난 상황을 맞은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사정은 어떤지 ‘국가의 존망을 걸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북한의 모습은?’을 다룬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북한이 열악한 의료시설에다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지원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남북 협력가능성을 진단한 기획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넘어서 평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특히, 신미정진행자의 <단박톡>과 <북마크TV>가 끝날 때마다 메시지를 요약해 전달력을 높인 점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임으로 남북이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와 “자연과 어족자원을 살리는데 남북이 함께 힘을 보태자”는 마무리 이야기가 적절했다.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북한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북한 출신 교수가 출연해 감염병 방역에 대한 경험, 실상, 백신과 치료제 부족 현상 등을 깊이 있게 얘기해 북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북한의 위생방역소 역할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중국과 접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이 800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 구호용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였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23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정말 확진자가 0일까?’ 등의 의문점을 다뤄 흡인력을 제고했고, 북중 경계가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800만명에 대한 완벽한 방역에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문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민간요법 ‘쑥 태우기’와 ‘살벌한 차단법’ 등의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이목을 끄는 요소였다.

<북마크TV>는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습지로 ‘문덕철새습지 보호구’를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자연과 철새가 공존하는 북한의 특별한 철새 습지 행사와 세계가 주목하는 함남 문덕군의 문덕철새습지보호구에 사는 희귀종 긴부리 도요새 등과 멸종위기 명태기르기에서 1.3mm크기 새끼명태 배양의 모습을 리얼하게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했다.

북한의 습지가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북한의 생태보호로 습지가 잘 보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 북한이 명태 살리기를 통해 명태를 보존하고 증식해 식량난 타개 방책으로 삼았다는 정보전달이 매우 유용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2. 29.	시청률	0.415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제1회 방송은 '낭만설국, 울릉도의 겨울'이라는 주제로 울릉도의 겨울이 들려주는 소리를 담았다. 울릉도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리, 바다와 바람, 눈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를 따라 다녔다.

울릉도의 북서부의 유일한 평지 겨울왕국 나리분지는 아름다운 설경의 빼어난 장면이 많았고 울릉도 사람들의 겨울나기 먹거리 향토 음식 문화와 어촌 겨울 경매 풍경이 잔잔하게 펼쳐져 보는 재미를 가득하게 하였다. 나리분지의 눈내리는 풍경과 한 계곡에서 물이 샘솟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바다 위 외딴 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풍경이었고, 이어 주민들의 추억의 먹거리인 오징어 내장탕과 호박막걸리가 소개되었다.

【구성 및 내용】

■ 울릉도 나리분지

섬마을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리, 바다와 바람, 눈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울릉도 항구에서 17km 정도 떨어진 나리분지가 펼쳐진다. 겨울이 되면 나리분지는 설국으로 변모한다. 나리분지를 오르는 과정의 설경을 보여주면서 눈이 오는 소리, 바람 소리, 눈을 밟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등을 감성적으로 잘 담아냈다. 조선 말 울릉도 개척민들이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한 나리분지는 나리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30여 가구만 남아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 갇히기 때문에 도시로 나간다. 나리분지의 계곡에서 물이 샘솟는 소리와 풍경은 바다 위 조그마한 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광경이다.

■ 울릉도 민가에서 해 먹는 음식

가을부터 미리 손질하여 마련한 오징어 내장은 겨울철 든든한 양식이다. 울릉도에서 흔히 잡히는 오징어이지만 팔기에 급급해 그나마 남은 오징어 내장은 귀한 먹거리였다. 직접 말린 무청 시래기를 함께 넣고 끓인 오징어내장탕은 울릉도 사람에게는 몸으로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다.

이 밖에 나리분지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부터 민가로 내려와 이 지역 특유의 음식인 오징어 내장탕, 늙은 호박을 손질하여 10시간 이상 끓여 만든 호박잼을 이용하여 호박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맛을 표현했다.

■ 울릉도 항구

오징어를 가득 실은 어선이 항구로 들어왔다. 비록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경매현장은 여전히 힘이 넘친다.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하며 예전의 가득 찬 어판장은 보기 힘들다.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경매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바다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재조명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2. 29.	시청률	0.041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22회 방송은 충남 아산시의 “파손된 육교 ‘시민안전 위협’...즉각 수리 예정”과 경기 화성시의 “지워진 교차로 차선 ‘위험’...현장점검으로 민원해결 속도”를 다뤘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제때 처리되지 않는 민원이 행안부의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처리로 바뀌는 사례가 소개돼 행정수요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킨 점이 긍정적이다. 취재기자가 민원해결 현장을 직접 찾아 핵심이슈(민원내용)→능장 처리 원인문제점→행안부의 현장점검→관계부처 협의(처리과정)→생활민원 우선 처리 과정을 밀착 취재해 위민행정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신국진 기자는 취재에 앞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현장 취재와 관계자 인터뷰를 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 바란다.”고 시청자 양해 공지를 하였다. 취재 기자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및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빛난 모습이었다.

【구성 및 내용】

‘13년 된 육교계단 일부 파손’, ‘지워진 교차로 차선 안전 위협’ 사례를 통해 행안부가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전달해 이해도를 높였다.

■ 13년 된 육교계단 일부 파손...즉각 수리 예정

충남 아산시 풍기동 지역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다루었다. 장항선 주변에 위치한 육교 계단 파손이나 깨짐 현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예산부족으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등을 자세히 담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문제로 민원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미흡함은 있었지만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달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지워진 교차로 차선 안전 위협, 현장점검으로 민원 해결 속도

경기도 화성시 영천사거리 교차선 도색 문제로 안전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차선이 지워진 교차로의 경우, 사고위험이 큰데도 도색작업이 지연됐으나 행안부의 현장점검으로 민원해결이 앞당겨지는 사례가 소개됐다. 지역민의 불편함을 잘 담아냈고, ‘교차도로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인식을 제공했다.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안부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처리상황을 살피고 처리기관에 촉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담아 민원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지워진 차선으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피고, 행안부는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1.	시청률	0.017

【총 평】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욱일기 논란’이라는 부제로 올해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욱일기 경기장 내 사용 입장과 더불어 한국의 욱일기 사용 금지 대응과 국내 거주 혹은 관광 중인 외국인의 욱일기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삼일절을 맞아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했고 살아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논리적인 내용 구성, 다각도로 이뤄진 분석 등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취재물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일본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도쿄 올림픽 담당 장관인 사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의 올림픽 경기장 내 반입 및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올림픽 조직위 또한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개최국 조직위의 권한이지만 욱일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사용했던 군기다. 이에 일제의 만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일본의 욱일기를 동일시하고 있다.

■ 욱일기 반대 시민운동

반크에서 일하는 에리카씨는 욱일기가 가진 의미를 알고나서 욱일기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욱일기 사용 반대 글로벌 청원을 시작하며 관련 홍보도 SNS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인인 클레어씨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국이지만 욱일기 저항이 강하지 않은 필리핀은 과거 일본이 미국과 전쟁 시 전략적 요충지로 식민지화가 되었었다. 이에 욱일기에 대해 필리핀 역사 교과서에서도 교육시키고 있지만 고령층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옛날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 유럽에서의 욱일기 인식

잉글랜드 축구구단, 네덜란드 축구구단 중 일부는 욱일기를 문제인식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폴란드 식음료 회사 및 패션회사 등도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는 등 욱일기가 다양한 제품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 한국의 대응

문체부는 IOC 위원장에게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사용금지를 요청했고 대한체육회 등도 도쿄조직위에 욱일기 관련 항의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크는 도쿄 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동영상도 제작하며 동시에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욱일기 사용 금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욱일기의 부당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욱일기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1.	시청률	0.109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2회 방송은 “흥작이면 뭐 어때”편으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 너멍골 산골짜기에 사는 새내기 부부의 생태계 보호 철학이 담긴 ‘무자본 농법’이야기를 담았다. 새내기 부부는 전화도 터지지 않는 너멍골 산골짜기에서 청계와 고추를 키우고, 벼농사를 지으며, 직접 지은 집과 명함 디자인, 나무 재를 이용한 비료 사용, 돌 벽난로 만들기 등 모든 것을 자연식으로 직접 만들어 썼다.

특히, 물리적인 편안함을 택하지 않는 노동 철학, 스스로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무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농업의 길을 개척하려는 과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또, 더디게 가더라도 부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도전하고 공부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자연 건강 농사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새내기 부부의 마음과 자연을 활용한 지혜가 곳곳에 묻어난 소박하고 따뜻한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오지산간 마을에 정착한 30대 새내기 부부가 벌이는 시행착오, 좌충우돌 과정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토종씨앗 육성 등 분명한 농사철학을 살려나가는 모습이 다큐식으로 그려져 힐링과 감동을 선사했다.

‘너멍골’판 ‘나는 자연인이다’형식으로 진행된 다큐식 구성이 소구력을 높였고, 귀농성공 사례가 아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식 도전과 경험이 색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밖에 청계 사육, 천연농약으로 토양 중화, 벽난로 집짓기, 상자 디자인, 고추 농사 묘종 하우스 만들기 등 농촌 일상이 잔잔하게 그려져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또, 시행착오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토종씨앗 육성 등 분명한 농사철학을 살려나가는 모습이 메시지로 다가왔고, 수확량은 적지만 유기농,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는 부부의 농사철학, 너멍골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살려나가는 자세 등이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농업’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30대 부부의 미래의 모습이 기다려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의 기획의도를 살렸다.

“농사와 인연을 맺어 결혼하고 실패를 거듭했으나 서로 응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뛰는 새내기 농업인 부부로 인해 너멍골의 희망이 가득하다”는 마무리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참고사항】

17:00 아내가 쥐가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야생 쥐를 발로 밟아서 잡았는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쥐를 물고 어디론가 향하자 “저런 새끼 쥐는 잘 먹더라구요”라고 얘기하는데, 반려견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2.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이템이 방송돼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아이들이 그림사연을 보내면 그 그림과 똑같은 봉제인형을 만들어 선물해주는 고마저씨,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판교',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그리고 봄향기 가득한 영상구성 등은 밝고 희망을 주는 소식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침체에 빠진 국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기획이었다.

국민인터뷰에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고마저씨의 프로젝트 동기와 계획 등을 통해 동심을 살리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스타트업 메카 '판교'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로 우뚝 성장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이모저모를 희망적으로 소개했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허브로서의 '마중물'역할이 기대되었다.

또, 부산 갈매기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아나'와 '온나'를 통해 오는 6월 21일 부산 벅스코에서 개막되는 세계탁구대회를 알리고 있다. <한국의 미> 영상뉴스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우울한 속에서도 봄향기 가득하고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각종 꽃의 자태를 영상으로 보여줘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3월 들어 첫 주에 '봄기운 물씬' 영상뉴스를 보여주는 <한국의 미>가 돋보였다. 버들강아지, 홍매화, 동백꽃 등이 서로의 자태를 뽐내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했다. 코로나19 시름 속에서도 새봄, 새희망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 아이들에게 꿈 선물... '고마저씨' 박성일 대표

아이들이 그림사연을 보내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봉제인형을 선물해주는 '고마저씨'의 나만의 인형 프로젝트는 동물친구들이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립암센터 환우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투병생활에 힘이 되는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환우들이 그린 그림과 똑같은 인형을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로 키운다

첨단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판교로 입주하며 스타트업 지원 및 글로벌 진출의 가교를 만들어주려 한다. 지자체 또한 해외진출 유망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판교를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마스코트' 등장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6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 갈매기를 상징하는 공식 조형물이 부산역에 등장하여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탁구채를 잡은 갈매기를 형상화한 마스코트 '아나'와 '온나'를 통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관심도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3. 2.	시청률	0.017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108회 방송은 ‘코로나 19 진단키트 믿을 수 없다?’를 명제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 파악과 허위 루머를 비롯해, 진단 키트 사실 여부부터 시작해서 감염의 위험성,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 화장실 손 건조기 효과, 백신 제작 가능성, 중국산 마스크의 위험성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는데, 비상시국에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위주로 국민들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언론 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구성 및 내용】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과정,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의 성능과 정확성 문제, 감염병 관련 보도 준칙 필요성, 확진자 방문 장소를 방문 시 감염될 가능성 등을 다루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손 건조기 살균 효과 여부, 완치자 혈액 이용한 백신 제작 가능성, 중국산 마스크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 잘못된 보도 사례와 부적절한 단어 사용 등을 담았다.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과정

코로나19 의심환자 대처 과정을 ‘의사환자→검체 채취→유전자 검사→양성반응→질병 관리본부 최종 검사→확진자 판정’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매우 유용했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의 성능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용 화장실 손 건조기가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중국에서 수입된 마스크가 위험한지 등 진실처럼 퍼져가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혀주어 유익했다.

■ 질병 관련 내용을 전하는 언론의 공정성 강조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어려운 실태를 조명하고 질병 관련 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자세히 짚어 충분히 공감할 만한 했다. 특히, 부정적인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봉쇄가 어렵고 이를 해결할 차선책으로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을 정부 또는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형식으로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와 관련해 퍼져있는 가짜뉴스 체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손 건조기 살균 효과, 완치자 혈액 이용한 백신 제작 가능성, 마스크로 입만 가려도 감염 예방이 가능 여부, 중국산 마스크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 등 SNS 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부정확한 정보로 떠도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정보습득에 매우 도움이 됐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3. 6.	시청률	0.026

【총 평】

<최일구의 정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안전이 최대이슈가 된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을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경제활력을 높이는 분야, 국제협력 분야, AI시대 변화하는 관세행정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정책 알림이 역할과 함께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특히, 마스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밀반출 단속 강화, 늘어나는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다룬 점도 시의적절했다.

관세청이 관세부과와 징수업무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경제활력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통상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AI를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등 변화하는 관세청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했다.

【구성 및 내용】

<최일구의 정말>에서는 국가 경제활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계속되는 마스크 품귀현상과 이로인해 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수출 금지 및 불법 휴대반출 차단 등으로 관세행정은 일반 대중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 국경에서 위협을 차단하는 관세행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 경제 활력을 높이는 관세청 역할, 우호적 통상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AI시대, 관세시스템 고도화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았다.

■ 국민 안전 보호 위한 관세정책

관세청은 해외 유입 물품을 직접 관리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차단한다. 또한 마약, 총기류, 불법 물품 등의 국내 차단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 등을 협업 통해 적극 차단하고 있다. 또,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한 인물 검색 등 정밀 타겟팅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과 협업하며 해외 세관 단속기관과의 협업을 하고 있다.

■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청의 역할

올해 관세청 최우선 목표는 수출지원 및 확대를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관세정책을 마련했다.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보세공장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우호적 통상환경 위한 국제협력

'관세외교'란 익숙하지 않은 토픽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고리로 알기 쉽게 전달했고 특히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한 국제적 공조 즉 '관세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관세청 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